통일순례 행자들 '평화통일' 서원하다

민추본 제85차 월례강좌 김포 접경 평화순례 현장

35명 참여…애기봉 평화공원 찾아
1.4㎞ 밖 이북 조망, 분단현실 목도
김포 용화사서 평화통일발원문 낭독
"佛法따라 정진하면 통일 이룰 것"

김포=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한 회원이 조강 너머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애기봉 루프탑 154 조망대'는 북한 개풍군과의 거리가 고작 1.4㎞에 불과한 최단거리 전망대다.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두 정상이 경계를 넘나들며 반갑게 악수하던 장면은 양 국민에게 평화통일이라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란 희망을 안겨줬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그때 품었던 희망은 두 정부가 서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냉랭해지다 못해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가져온 허탈함과 좌절감에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새로운 판문점선언과 평화통일을 발원하며 평화순례길에 올랐다.

민추본은 4월 20일 제85차 월례강좌로 '4·27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 김포접경 평화순례'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총 35명의 순례객들은 한강하구수역 조강과 북한 개풍군이 조망되는 김포 남북접경지역을 탐방하며 대화와 존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전쟁 및 갈등이 없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발원했다.

순례객들은 가장 먼저 김포 문수산성을 찾았다. 문수산성은 1694년(숙종 20) 문수산과 해안지대를 성채로 연결한 조선시대 산성으로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과 격전을 치른 역사적인 장소다.



회원들이 문수산성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당시 조선군은 우월한 군사장비로 무장한 프랑스군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다.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고 항쟁했고, 문수산성은 해안 쪽 성벽과 문루가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 프랑스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순례객들은 문수산성 성곽을 따라 문수산을 오르고 한창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성곽을 둘러보며 외세의 침략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던 민족의 역사와 전쟁의 상흔을 되짚었다.

이어 순례객들이 방문한 장소는 한반도 유일의 남북 공동수역에 위치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을 사이에 두고 이북 땅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154 조망대'는 북한 개풍군과의 거리가 고작 1.4㎞에 불과한 최단거리 전망대다. 6·25전쟁 당시 '154 고지'로 불리며 수차례 격전이 벌어졌던 군사요충지이이기도 하다.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접경지역인 만큼 순례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해병대 검문소였다.

버스에 올라타 순례객들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해병대원의 모습을 본 한 순례객은 "검문소와 총을 든 군인들을 보니 이곳이 접경지역인 것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조망대에 오르기 전 애기봉 평화생태전시관에서 애기봉 지명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순례객들은 자유롭게 전시관을 관람하며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자연과 평화를 상징하는 애기봉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고향이 함흥인 최명자 회원이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치고 하나둘 조망대에 오른 순례객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건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북한 개풍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순례객들의 얼굴에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북 땅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다.

몇 년 전 순례에서 애기봉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회상한 신유식 회원은 "확실히 그때보다 북한 땅에 건물이 늘어났다"고 운을 뗐다. 날씨가 좋으면 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과 뛰어노는 어린이들까지 보인다고 말한 신 회원은 "(서로가) 이렇게나 가까운데 왕래하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분단의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신 회원은 "민추본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평화통일의 발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이 용화사에서 평화통일을 발원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다른 순례객들이 조금씩 조망대를 내려가 제법 한산해진 가운데 유독 북한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순례객이 있었다.

민추본 2기부터 활동을 해온 최명자 회원의 고향은 다름아닌 함흥.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에도 수차례 고개를 돌려 북한 땅을 바라본 최 회원은 "세 살 때까지 함흥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며 "전쟁의 포화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신 부모님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셨다"고 전했다.

언젠가는 고향 땅을 다시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민추본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최 회원.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꾸준히 민추본 평화순례에 참여해온 최 회원은 금강산과 천태종이 복원한 개성 영통사 등을 찾아 평화통일을 발원했고 지금도 염원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추본 순례객들은 손에 닿을 듯한 북한 땅을 뒤로하고 김포 용화사를 찾았다. 용화사는 민추본이 추진하는 평화통일도량사업에 참여한 사찰이기도 하다. 순례객들은 용화사에서 반야심경 봉독과 평화통일발원문을 낭독하며 공존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을 서원했다.

한창희 회원은 "2017년부터 민추본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을 직접 찾으니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민추본 활동에 적극 참여해 평화의 중요성을 가슴속에 새겨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부 회원인 임병석·박효순 회원은 "살면서 오늘처럼 남북접경지역을 찾아 북한 땅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민추본 활동을 통해 이처럼 희소한 기회를 잡고 몰랐던 역사와 비극적인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니 마음에 더 와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회원은 "이 같이 뜻 깊은 활동에 부디 청년 세대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어디서도 하기 어려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평화순례에 참여하기 위해 경북 구미에서 올라왔다는 박용철 회원은 "우리 사회의 화두는 언제나 평화통일"이라며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진 불자들끼리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해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순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갈라진 두 세계를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역사해설을 맡은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는 "남북관계 악화와 높아져가는 군사적 긴장감은 6년 전 4·27판문점선언으로 들떴던 양 국민에게 허탈함과 절망을 안겨줬다"면서도 "허탈함과 좌절감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 평화순례에 임한 민추본 회원들의 모습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들의 진심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부처님 법을 따라 정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간다면 오늘 발원한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